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별

오늘날 작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돈과 명예가 그 전부인가. 그러나 그 대답은 결코 간단치가 않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이 시대를 엄혹하게 제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굽힐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칠팔십년대라는 긴 겨울공화국을 살아 온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다.

K兄은 이러한 물음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현실과 발언」을 창립하여 그 중심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을 만들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민예총을 만들면서 그는 미술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마음고생과 먹고 사는 고생을 밥 먹는 듯 하는 그에게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많은 가까운 친구들은 그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충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끈질기게 계속하였지만(최민兄의 경우는 물감까지 사서 챙겨주었다), 그는 여전히 투쟁의 현장에 맨 몸으로 서 있었다. 초기에 그는 선명하고 굳세어 보였고 신선한 모습이었다.

군부시대를 지나 김영삼, 김대중 정권시기에 그는 일상 속에 점점 묻혀갔다. 어설픈 민주화는 그에게서 스포트라이트를 거두어들였고, 어둠이 깊지 않은 곳에서 그의 빛은 상대적으로 약해져만 갔다. 마치 동이 트면서 점차 사라져 가는 별빛처럼 말이다. 과연 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사람 좋고 호방한 그는 「현실과 발언」 창립과 함께 일약 동인의 중심에 우뚝 선다. 모두를 끌어 안을 뱃심을 가진兄(실제 그는 바지를 명치 끝까지 끌어 올려 봉긋하게 튀어나온 배를 과시하며 노래를 부른다. 그의 절창은 뱃심의 소산이다)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정면만을 돌파하였다. 그에게 합리란 없다. '옳으나 그르냐'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있다. 논리를 뛰어넘는 의

지와 직관과 행동이 그의 방식이었다.

1982년 「현실과 발언」은 〈6·25展〉을 준비하고 있었다. K兄은 부리나케 동두천을 오고 갔다. 사진관을 뒤지고 다닌 것이다. 그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동두천의 사진관을 이 잡듯 살살이 뒤지며 발로 뛰면서 모아 온 사진들은 무려 수천 장이나 되었다. 나는 형이 모아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역장이 무너져 내렸다. 상투적인 사진관 사진들도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개개인의 비극의 기록이 있었고, 찰나의 행복이 있었고, 민족분단이 얽혀 있었고, 동족상잔의 슬픈 역사가 살아 있었다. 또한 미국이 강요하는 힘의 논리의 노예가 되어 이국땅에서 멧모르고 날뛰는 식민종주국의 불쌍한 영혼들이 있었다. 확연히 구분되는 흑백의 불균형, 그 사이에 끼여 마지막 희망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 하나로 매달려 있는 우리의 딸들이 있었다. 아마도 K兄 특유의 친화력과 인간미 없이는 이 많은 사진들은 결코 반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당시만 하여도 반미는 곧 죽음의 길이었다).

그는 주워 모은 사진으로 전시장 벽에 'DMZ' 세 글자를 썼다. 이 기념비적인 작업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작업(몇 작품이 더 있으나, 이 큰 감동에 가려 내 기억에는 없다)을 하지 않았다. 이 작품은 발상에서부터 그 과정, 또 결과까지 수미일관 완벽한 작품이다.

민중의 고통과 현실을 모아 거대한 불행의 뿌리를 드러내

먼지처럼 흩뿌려져 보이지 않는 민중의 고통과 현실을 주워 모아 거대한 불행의 뿌리를 드러내고 그 실체를 낱알이 폭로하고 각인케하는 형의 'DMZ' 사진 작업은 사진이 가지는 위력(비록 틀에 박힌 세트에 상투적으로 양산된 이름 없는 사진사- 사진작가가 아니다)-들의 사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가치가 있는)을 실감케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거짓 도상이 아니라 실재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점, 그리고 찍히는 순간에 과거가 되고 마는 시간의 블랙홀 그 허무, 바로 이웃의 아픔과 내가 관련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도 확실하나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현대사의 모순 등 켜켜이 쌓인 작품의 베일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나는 행복하였다. 아! 그리고 나는 미군들이 기념 촬영할 때, 배경에 쓰여져있던 영어 문구를 잊을 수가 없다. "I am sure to go heaven, because I spent my time in hell."(나는 꼭 천국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내 생애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그림에 끌려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 귀신에 홀린 듯 그림은 그리는 재미가 있다. 돈도 되고 명예도 되면 이전 그림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림은 그림만을 위한 것일 수는 없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그림이 존재하느냐의 물음에 명쾌한 답을 못하는 그림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를 이끌고 이 시대의 대안으로 앞서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없는 그림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니다. 이런 그림은 더 이상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 또는 그런 그림보다 앞서는 일이 있을 때 그림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K兄은 스스로 그림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 타의로 붓을 꺾은 것인가. 그도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 것인가.

www.oksanglim.com



임복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광주교육대학 교수(1979-81)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1981-92)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1986) 민족 미술협회 대표(1993-94)
저서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벽 없는 미술관」